

“광복절 승전고를 울려라”



지난 13일 오후 인도네시아 자와바랏주 반둥의 반둥공과대학(ITU)에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한국 U-23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범호, 오늘 밤 9시 바레인과의 1차전 격돌

“화끈한 골잔치로 사상 첫 AG 축구 2연패 포문 연다” ‘방심은 금물’...실전 경기장 잔디 밟고 출전 변수



한국 남자 U-23 축구대표팀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2연패를 향한 대장정을 시작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3 축구대표팀은 한국시간으로 15일 오후 9시 인도네시아 반둥의 시 잘라 하루팟 스타디움에서 ‘중동의 북방’ 바레인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조별리그 E조 1차전을 펼친다. 한국은 역대 아시안게임 남자축구에서 4차례 우승(1970년·1978년·1986년·2014년)을 달성, 이란(1974년·1990년·1998년·2002년)과 함께 역대 최다우승을 기록 중이다. 더불어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우승 팀인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내면 아시안게임 최다우승 뿐만 아니라 한국 축구 사상 역대 첫 아시안게임 2연패도 달성한다. 한국 U-23 대표팀은 바레인과 역대 전적에서 6승1무로 압박적 우세다. 대표팀의 코치인 김은중은 1999년 11월 시드니 올림픽 최종예선에서 골맛을 보기도 했다. 다만 바레인과 마지막으로 대결한 게 2007년이었던 만큼 역대 전적만 믿고 방심하면 안 된다. 지난 12일 새벽 반둥 숙소에 여장을

폰 대표팀은 도착 당일 휴식을 취한 뒤 13일 반둥공과대학(ITB) 운동장에서 첫 소집훈련을 치렀다. 13일 반둥에 도착한 손흥민이 합류하면서 20명의 완전체가 된 김학범호는 스트레칭에 이어 패스 훈련과 볼킥 등으로 가볍게 몸을 푸는 것으로 첫 훈련을 끝냈다. 한편, 바레인과의 경기를 하루 앞둔 태극전사들에게 돌발 변수가 발생했다. 14일 훈련에서 세트피스와 세부 전술을 맞춰보기로 한 태극전사들이 조별리그 1차전이 펼쳐지는 ‘시 잘라 하루팟 스타디움’의 잔디를 경험해보지 못하고 실전을 치르게 됐다. 국제대회에서는 보통 경기 전날 양 팀 감독과 선수가 나서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경기가 열리는 스타디움에서 훈련하게 마련이지만 이번 대회 조직위원회는 공식 기자회견은 물론 실전 경기장 훈련 일정을 만들지 않았다. 14일 오전 이민성 코치의 차장광 골키퍼 코치를 대동하고 바레인전이 치러질 시 잘라 하루팟 스타디움을 찾은 김

학범 감독은 “옛날 한국에서 쓰던 잔디다. 선수들이 한 번 뛰어봤어야 했는데...”라고 아쉬워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그라운드 이곳저곳을 밟아본 김 감독은 “잔디는 나쁘지 않다. 다만 위쪽은 폭신하고 바닥은 딱딱하다. 이런 잔디는 체력 소모가 크다”라며 “몸을 많이 뿌리지 않으면 저항이 심해 불이 잘 구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한국은 조별리그 1차전에서 바레인과 맞붙는다. 김 감독은 “선수들이 잔디를 직접 밟아보는 게 중요한데 그러지 못해 어렵다”라며 “선수들이 잔디를 밟아보고 적당한 축구화를 골라야 한다. 그러지 못하는 만큼 선수들이 축구화를 3-4개 정도 들고 와서 경기 당일 축구화를 선택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조건을 따지면 안 된다. E조 모든 팀이 경기장 잔디를 경험하지 못한 같은 조건”이라며 “모든 것을 감수하고 마지막 준비를 착실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한국축구 캡틴 손흥민 ‘자카르타 빛넬 5인’ 선정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AFP통신이 축구 대표팀의 손흥민(사진)을 ‘아시안 게임을 빛낼 스타 5인’ 중 1명으로 뽑았다. AFP는 14일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종합 스포츠대회인 아시안게임이 막을 올린다”며 “5명의 글로벌 스타들이 빛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각 종목 5명의 선수들을 소개했다. 손흥민에 대해 AFP는 대한축구협회와 토트넘이 손흥민이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대신 내년 1월 아시안컵 첫 두 경기는 뛰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전하며 이번 아시안게임에 손흥민의 병역문제가 걸려있음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AFP는 손흥민 외에 중국 육상 남자 100m의 수빙옌, 일본 배드민턴 모모타 겐토, 싱가포르 수영 선수 조셉 스콜링, 말레이시아 스쿼시 대표 니콜 데이비드를 아시안게임 스타로 꼽았다. 수빙옌은 최근 100m에서 두 차례나 9초91의 기록을 내며, 4년 전 100m 은메달을 금메달로 바꾸려 하고 있다. 배드민턴 세계랭킹 2위까지 올랐던 모모타는 2016년 불법 카지노 출입 사실이 적발돼 리우올림픽 출전이 좌절된 후 재기에 성공해 중국 단단을 제치고 남자 단식 우승을 차지할 후보로 꼽힌다. 리우올림픽에서 ‘수영황제’ 마이클 펠프스를 꺾은 스콜링과 앞선 4번의 아시안게임에서 4개의 개인 금메달과 2개의 단체전 금메달을 딴 데이비드가 몇 개의 메달을 더 가져갈지도 관심사다. /연합뉴스



지난 13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2 광주FC와 아산문공화FC의 경기에서 광주의 펠리페가 전반전에 득점골을 터뜨린 후 선수들과 환호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광주FC “펠리페 데뷔골 아깝다”

아산戰 전반 1분 선제골 불구 아쉬운 1대1 무승부. 프로축구 광주 FC가 펠리페의 데뷔골에도 아산 문공화전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광주는 13일 오후 8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아산 K리그2 23라운드 홈 경기에서 1대1로 비겼다. 아쉽게 승리를 놓쳤지만, 최근 8경기 연속 무패(3승 5무)를 이어가며 승점 33점으로 4위를 유지했다. 4-3-3 전술로 나서 광주가 경기 시작 1분 만에 선제골을 터트리며 기세를 제압했다. 이오름의 크로스를 펠리페가 헤더 슈트로 연결하며 아산의 골 망을 흔들었다. 광주는 후반 시작과 함께 다시 공격에 나섰다. 후반 1분 김정환의 빠른 돌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포키 짜부르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핸드볼 예선 한국과 파키스탄의 경기에서 구공원이 슈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자핸드볼, 첫 경기 기분 좋은 대승

파키스탄 41대17 완파. 한국 선수단 중 처음으로 경기를 치른 남자 핸드볼 대표팀은 기분 좋게 첫 승을 올렸다. 2010년 광저우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한국 남자 핸드볼은 8년 만의 아시아 정상 탈환을 노린다. 한국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카타르에 패했다. 이번 대회에서도 카타르를 넘어야 금메달을 딸 수 있다. 한국에 앞서 A조에서 첫 경기를 치른 카타르는 말레이시아를 64-11로 눌렀다. 한국은 17일 일본과 B조 2차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왕희송, 청소년올림픽 태극마크 <동광양중>

대통령배 수영, 평영 100·200m 우승...올해 5번째 2관왕. ‘국내 여자 평영 1인자’인 왕희송(동광양중 3·사진)이 올해 5번째 2관왕에 오르며 국제대회 참가 기회를 획득했다. 15일 대한수영연맹과 전남수영연맹에 따르면 왕희송은 지난 13일 남부대 국제수영장에서 폐막된 제37회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 여중부 평영 100m와 200m에서 2관왕 몰살을 갈랐다. 특히 왕희송은 평영 200m에서는 대회신기록을 작성하는 한 수 위의 기량을 과시했다. 이에 따라 왕희송은 오는 10월6일부터 18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제3회 하계청소년 올림픽경기대회 출전 티켓을 획득했다. 2017 인도네시아 국제오픈 수영대회 여자 평영 100m와 200m에서 정장한 성



인 경쟁자들을 뿌리치고 금메달 2개를 획득한 바 있는 왕희송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국가대표 삼비군에 발탁돼 ‘수영 신동’으로 불리고 있다. 특히 물을 타는 능력과 킥 동작이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국내 수영선수 중 4명만이 참가 티켓을 따낸 하계청소년올림픽경기대회는 청소년 문화교류 기회 등 많은 특전이 제공된다. /북회중 기자 ehsq01@kjdaily.com

김범진, 전남도지사배 학생골프 우승 <망운중>

상비군 대표 선발 유력. 무안 망운중 김범진(3년)이 제13회 전남도지사배 전국중·고학생골프대회에서 중학부 개인전 정상에 올랐다. 김범진은 최근 무안CC에서 끝난 대회 남자 중학부에서 최종합계 134타(67타, 67타)로 2위 김경민(구미 오상중)과 3위 박상현(수원중, 이상 137타)을 3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김범진은 올 전국대회 첫 정상을 누리는 기쁨을 만끽했다. 지난해 전국소년체육대회 단체전 금메달과 제4회 한국 C&T배 전국중·고학생골프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김범진은 올해는 지난 4월 전남골프협회장배학생골프대회 겸 전남소년체육대회 학생골프대회에서 우승했을 뿐 전국대회 우승과는 다소 멀었다. 제4회 영건스매치플레이(7월) 8강 진출이 그나마 위안이었다. 하지만 김범진은 이번 대회 우승에 따라 랭킹포인트에서 전국 1위를 달려, 중학생 4명에게 주어지는 상비군 대표 선발이 유력해졌다. /북회중 기자 ehsq01@kjdaily.com



나주초 5학년 때 처음으로 클럽을 잡은 김범진은 정확한 아이언샷과 침착한 경기운영능력 등이 장점이다.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비거리를 조금 늘리고 퍼트를 보완할 경우 국가대표 성장은 물론 세계무대에서의 활약이 기대된다. 김범진은 “주변에서 많이 도와준 것을 잘 알고 있기에 훈련을 결코 게을리 할 수 없다”며 “반드시 훌륭한 선수로 성장해 무안은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골프선수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북회중 기자 ehsq01@kjdaily.com